

<한국여성재단의 2003년>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에게 있어서의 2003년은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열기 위해 기금모금을 시작한지 4년째가 되며 여성단체들의 성평등사회만들기와 여성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3년째가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기부풍토에서 여성들을 위한 재단의 오늘을 일구어내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2003년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소비심리위축으로 기금모금의 성과는 부진했다. 그러나 반면 재단의 지원사업의 규모가 2002년의 3억5천7백58만원에서 2003년에는 6억1천5백13만8천300원으로 거의 배가된 것은 우리 주변에 이웃을 직접 돕고자 하는 지정기탁금을 건네준 따뜻한 손길이 줄이어 지는 데서 가늠했다. *능 27612251*

우리나라에서처럼 기금운영이 감소추세에 있는 은행의 금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의 수익을 높이고 있는 기부문화선진국에서와는 달리 기금축적의 의미가 크지 않다. 본재단이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기금모금 위주의 모금확충에서 사업지원금 모금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재단의 기본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단체활동 지원이 우선 업무이기 때문이다. 여성재단이 주력한 것은 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기부자들과 연계하는 그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2003년이 바로 여성재단이 이 일을 시작한 해이다. *4/10*

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하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의 실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이라는 기획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이 과제를 교보생명공익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된다. 여성재단의 소외계층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양성, 국제화시대에 부합되는 국제지도력양성 등의 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뜻있는 독지가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기*

한국여성재단의 2003년을 되돌아보면 우선 이 나라의 기부문화 확산과 여성문제 해결에 특출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희생적인 실무진의 팀워크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은 재단의 큰 힘이다.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개발과 모금활동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외활동을 통해 나눔의 운동의 정착에는 물론 여성재단을 사회에 홍보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의 큰 성과이다. *우선* *이것이* *미리보기* *다행으로* *행복한* *4/10*

특히 2003년 5월 캠페인에서의 <100인 기부 릴레이>의 성과는 모금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자신이 기부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것을 권하고 설득해내는 1,500여명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들을 엮어 내는 데서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로간주행수익* *4/10*

3회 천 4

지난 10월 초에 경북궁에서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문화 나눔의 잔치를 <빈소년합창단>의 초청공연으로 개최한 것이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공익재단과 공익활동단체의 합동행사인 <기빙엑스포>에 성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로또복원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통합복권법> 제정과 관련된 주초 청원 활동 그리고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 전개등은 2003년을 기해 여성재단의 활동의 폭을 넓게 하고 있는 흔적이다.

본재단이 금년도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성재단의 활동을 모금활동(Fund-Raising)뿐만이 아닌 우정키우기(Friend-Raising)운동으로 2004년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세상만들기,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서 발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정키우기 릴레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정키우기 릴레이

한글재단은 2004년 한해에

성령을(새)를 사랑함 릴레이를

주인공의 보물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